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9
2025.08.11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UN, 파리협정 Article 6 탄소거래 시스템 구축 본격화
- EU, 탄소누출 방지 위해 ETS 보조 대상 산업 확대 예고
- UAE, 탄소시장 제도화 본격 시동, 탄소크레딧 금융상품으로 간주
- 튀르키예, Article 6 연계한 독립 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 독일, “감축 넘어 제거로” 환경부에 CDR 전담부서 설치
- 독일, CCS 인프라 속도 낸다, 탄소 저장법안 내각 통과
- 영국, 첫 BECCS 전환 승인, 폐목재 발전소가 탄소 제거 기지로
- Gold Standard, 탄소 유출 방지 위한 새 기준 초안 발표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UN, 파리협정 Article 6 탄소거래 시스템 구축 본격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이 향후 몇 주 내 파리협정 제6.2조 및 제6.4조 이행을 지원할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식 입찰 절차를 시작할 예정

동 시스템은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제6.2조)와 국제 인증 탄소크레딧 발행 제도 (제6.4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UNFCCC는 현재 시스템 사양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힘.

현재까지는 규정만 있었고 실제 거래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금번 입찰은 실질적인 Article 6 이행의 첫 걸음으로 평가

한편, 새로운 Article 6.4 메커니즘인 PACM (파리협정 신용 메커니즘)도 올해 말 첫 크레딧 발행을 앞두고 있음. 이는 기존 CDM을 대체하는 구조로, UN이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만 크레딧 발행이 가능

현재 약 40건의 기존 CDM 프로젝트가 PACM으로 전환 승인을 받았고, 약 1,500건이 추가 전환을 대기 중



EU, 탄소누출 방지 위해 ETS 보조 대상 산업 확대 예고

유럽연합 집행위가 EU ETS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큰 산업에 제공 중인 간접비용 보조 제도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공식화

현행 지침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는 알루미늄, 철강, 정제 석유제품 등 14개 산업에 대해 자국의 ETS 배출권 경매 수입 중 최대 25%를 전력비 보조금으로 제공 가능

그러나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EU ETS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함에 따라, 산업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간접 비용이 보조 지침 수립 당시(2021년) 예상을 상회. 이에 대상 산업 확대 및 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

집행위는 올해 4분기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 보조 대상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전력효율성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

보조 대상 산업이 변경·확대 시 각국 정부는 자국의 보조금 체계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개정안은 9월 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



UAE, 탄소시장 제도화 본격 시동, 탄소크레딧 금융상품으로 간주

아랍에미리트(UAE)는 탄소크레딧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규정하고, 탄소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 중.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50만 톤 이상인 기업의 국가 탄소 등록 의무를 규정한 2023년 결의안 67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결의안 67호의 주요 내용:

- 탄소크레딧은 금융상품으로 간주
- 승인·라이선스가 부여된 국외 플랫폼을 통해서도 크레딧 발행 가능
- SCA (증권상품감독청)의 권한:
 - 탄소크레딧의 상장·거래·청산·결제·소유권 이전
 -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발급
 - 관련 금융 플랫폼 규제
 - 위반 조사, 수수료·커미션 결정 등의 감독

UAE의 탄소크레딧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지정은 이집트와 유사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소크레딧을 종교·국내시장에 특화된 상품 (commodities)으로 보는 접근과는 다름.

UAE는 이를 통해 자발적 시장과 Article 6 기반의 국제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향후 배출권거래제도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둠. UAE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공약



튀르키예, Article 6 연계한 독립 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 내 ETS 대상이 아닌 탄소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실적을 정식 크레딧으로 전환해 국내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

동 초안은 자발적 탄소시장 및 파리협정 Article 6 거래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튀르키예 ETS 외부에서 수행되는 감축 및 제거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

국제 인증 기준을 참고해 설계된 국가 단위의 신규 크레딧 ‘Turkuaz Credit’도 도입 예정이며, 향후 Verra, Gold Standard 등과 병행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

해당 크레딧은 튀르키예 표준연구소 (TSE, Turkish Standards Institute)가 운영하는 레지스트리를 통해 발행 및 거래되며, 최대 10%까지 ETS 상쇄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정부는 Article 6을 통한 해외 거래도 추진 중이나, 관련 국가 감축목표 (NDC)는 아직 갱신되지 않은 상태. 동 초안은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



독일, “감축 넘어 제거로” 환경부에 CDR 전담부서 설치

독일 정부가 탄소 제거 (CDR)와 배출권 거래 (ETS) 전담 부서를 환경부 내에 신설. 또한 탄소 포집 저장 (CCS)은 경제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부처를 분리함.

동 부처 분리를 통해 CDR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정책 영역, CCS를 산업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경제·산업 영역으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독일은 2026년부터 CDR 분야에 약 5억 유로 (약 8,1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으로, 첫해에는 1.5억 유로 (약 2,400억 원) 를 초기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 프로젝트 자금 외 제거 크레딧 구매, 행정 비용, 토양 기반 탄소 흡수원 지원 등이 포함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와 함께 EU에 ‘영구 탄소 제거’를 ETS에 포함하자는 공동 요청을 추진 중이며, EU 집행위는 내년 EU ETS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독일, CCS 인프라 속도 낸다, 탄소 저장법안 내각 통과

독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내각에서 통과시킴.

해당 법안은 CO2 저장시설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공익 사업으로 분류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CO2 운송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특히 시멘트, 석회, 가스 발전 등 공정상 CO2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 탄소를 포집해 북해 해역 해저 혹은 연방 정부가 허용하는 자국 영토 지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독일은 북해 지역에 최대 83억 톤에 달하는 CO2 저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연간 최대 2천만 톤까지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영국, 첫 BECCS 전환 승인, 폐목재 발전소가 탄소 제거 기지로

영국 정부는 폐기물에너지 기업 Evero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탄소 제거 시설 (BECCS)로 전환하는 사업을 승인

동 시설은 나무 등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전기 생산 뿐 아니라 실질적 탄소 제거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 받음.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의 CCS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어 기존 저장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며, 향후 추가 설비를 포함해 연간 6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영국 정부는 2주 전, 온실가스 제거 기술 (GGR)을 2029년부터 ETS에 포함시키는 정책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Gold Standard, 탄소 유출 방지 위한 새 기준 초안 발표

Gold Standard가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의 유출 배출량 (leakage emissio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표준 초안을 발표,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

동 초안은 특정 지역의 고배출 활동이 감축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 즉 유출 (leakage)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과 정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새 표준의 주요 요건:

- 프로젝트로 인한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
- 적절한 조치를 통해 유출을 방지 및 최소화
- 방지 불가능한 잔여 유출 배출량은 크레딧 산정에서 차감
-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천을 목록화하고, 목록 제외 시 정당한 근거를 제시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